

디자인으로 들여다 본 미래세상



스마트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빌리티 비전'의 시연 모습. /최현배기자 choi@



오늘 개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신세계 조망
재활용·공존 등 가치 실현 작품 눈길
'본전시 2' 다양한 첨단 체험행사 흥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채롭다.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지라는 궁금증, 기대와 함께 우려와 불안도 교차한다. 7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프레스 오픈을 통해 공개된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의 'FUTURES(미래들)'를 역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신기술을 보여주는 최첨단 작품과 함께 '인간중심' 디자인의 의미를 놓치지 않은 작품들도 함께 보여졌다.

지금까지 비엔날레가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전시는 산업화에 좀 더 방점을 둔 게 특징이다. 특히 작가들의 '완성품'을 일괄적으로 전시하던 데서 벗어나 '과정'(Process)을 보여주는 전시가 많아 시간을 넉넉히 갖고 관람하는 게 전시를 '재대로' 즐기는 법 중 하나다. 일부 관객들은 다소 지루하고 밋밋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관객들은 '본전시2-미래를 디자인 하자'가, 디자인 본연의 의미를 찾는 관객들에게는 4개의 본전시 중 확연히 구분되는 '아시아

더 퓨처' 섹션에 흥미를 가질만하다.

이번 전시의 인트로 격인 '본전시 1-오래된 미래'는 과거에 미래를 꿈꾸었던 이들의 프로젝트를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인류의 역사를 각종 자료와 영상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염소인간' 등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도 눈에 띈다.

'본전시 2'에서는 3D 프린트로 만든 자동차의 모습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 직접 디자인이 되어 자동차를 디자인해 보는 '오토디자인'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흥미로웠다. 특히 스마트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자동차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빌리티 비전'의 시연 모습은 눈길을 끌었다.

또 현대적 디자인이 단순히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넘어서 '의미와 가치'에 방점을 두는 추세를 반영해 친환경, 자원재활용, 공존, 나눔, 배려 등의 가치를 실현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자전거에 잔디를 심고 운행하며 어디든지 '녹색 기운'을 전할 수 있는 자전거 공원, 공기 청정기와 우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에어 엠브렐라', 디자인 공유 프로젝트 '오픈 카이트', '마실 수 있는 책' 등이 대표적이다.

'본전시 3-미래를 창업하자'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시로 3D 프린팅과 스타트업 열풍을 소개하고 각종 창업 사례 등을 직접 보여준다. 다양한 3D 프린팅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점은 의미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구성이 단조로우 아쉬운 섹션이다.

본전시의 마지막인 '아시아 더 퓨처'는 기존 디자인비엔날레와 흡사해 관객들이 친숙하게 관람할 수 있는 섹션이다.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 화려한 '아시아 하모니 500개의 등'은 유명 작가들이 만든 아시아 각국의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그밖에 누에고치로 만든 전등, 나무로 엮은 책상 등 아시아의 전통기술과 자연재료로 만든 핸드메이드 디자인도 눈여겨 볼 만하며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 5 전시관에서 만나는 '디자인 아트페어'에서는 생활방식과 행동 양식에서 보여지는 변화의 징후를 디자인으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5관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전시 상품은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취재에 나선 중국 CCTV 웨이 디기자는 "미래 사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전시물과 아날로그적 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점이 인상 깊다"며 "아시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알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점도 의미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계속된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신나는 예술여행 리퍼블릭 페스티벌'

8~10일 문화전당 일대
공연·전시·이벤트 등 행사

'2017 신나는 예술여행 리퍼블릭 페스티벌(Re: Public Festival, 이하 리퍼블릭 페스티벌)'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리퍼블릭 페스티벌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성과를 나누고 확대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각종 공연, 전시, 이벤트, 체험, 컨퍼런스, 워크숍, 리셉션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안산팍스오케스트라의 '재즈(Jazz), 국악과 사랑에 빠졌다', 노름마치의 '노름마치 風 The K-Wind', 알라미사 칸의 '아프리카 음악 콘서트', 아트지의 '스트릿 댄스', 밴드 구각노리의 콘서트 등 여러 장르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신나는 예술여행 히스토리전 '예술의 시간을 걷다'가 열린다.



2017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공연을 펼칠 '악녀들의 바람난 국악'의 모습.

아시아문화광장과 예술극장 일대에서 는 예술로 요가, 예술로 스윙 등 광주시 역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참여형 이벤트가 열린다.

더불어 감성광대 제로의 '대행버블쇼', 그래픽티 아티스트 범민의 '에어샷아트', 아트 숭사당의 '캐릭터가 있는 숭사탕' 등의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향유사업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컨퍼런스와 신나는 예술여행 수행 단체의 워크숍 등 학술행사가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 귀국 독주회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이 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K.304',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이탈리아 모음곡',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Op.70'에 이어 마지막으로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로 꾸며진다.

5세에 바이올린에 입문한 박승원은 한 경공쿠르 대상, 대불대학교 전국학생음

악공쿠르 대상, 한국음악협회주최 콩쿠르 최고상 등 다수 대회에서 수상했다.

2001년 5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업했고 그해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협업 무대를 가졌다. 만13세에 유학길에 올라 음악의 보고장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했다. 광주 출신으로는 최초로 빈 국립음악대 바이올린전공 예비과, 학사, 석사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에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했고,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았다. 피아노 반주는 김민주씨. 문의 010-3058-267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전통문화관 내일 '풍류달빛' 공연...윤동주 '새로운 길' 창작 가곡 선보회

윤동주의 '새로운 길'을 국악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까?

'새로운 길'은 암울한 식민지 시대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시다. 특히 올해는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동주의 '새로운 길'은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윤동주와 김소월 등의 시를 창작 가곡으로 들려주는 이색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 전통문화관 야외 너털마당에서 풍류남도나들이 제5회 풍류달빛공연으로 '여(름)가을밤의 달빛소나타'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 국악그룹 '동화'는 음악적이고 운율적인 리듬을 가진 시를 노랫말로 한 창작 노래곡을 소개한다. 윤동주의 '새로운 길', 김소월의 '예전엔 미처 몰랐어

요' 등 시인들의 작품에 담긴 감성을 전한다. 또 '동화'의 정규2집 앨범 'Another dreams'의 타이틀곡 '신바람'과 '숨바꼭질' 등을 선보인다.

이어 담양 출신 소리꾼 김영희 씨가 판소리 '춘향가' 중 '속대머리'와 '배 띄워라'를 노래하고, 소리꾼 조수황 씨는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